농가 소득·신선함 '업'…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농협 전남본부, 올 100개로 늘려…최근 3년간 43→62→80개 증가
지난해 913억 매출·해마다 100억원씩 매출 증대…올 1000억 목표

농협 전남지역본부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올해 로컬푸드(직거래 농산물) 매장을 20개 늘린 10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를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의 해'로 정한 전남본부는 판매자 현장교육을 강화하고 무인 매장 등 새로운 유형의 점포 도입을 시도한다.

9일 농협 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남지역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은 총 80개로, 전년보다 18개 증가했다.

로컬푸드(Local Food)는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은 지역농산물을 말하는데, 흔히 반경 50㎞ 이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뜻한다.

전남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은 최근 3년 동안 폭발적으로 늘었다.

2017년 15개였던 매장은 2018년 18개, 2019년 43개, 2020년 62개, 2021년 80개로 증가해왔다.

직매장 80개와 이동형 매장 24개 등을 합하면 전남지역에서 로컬푸드를 접할 수 있는 농협 매장은 105개로 늘어난다.

2022년을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의 해'로 삼은 전남농협은 올해는 20개 늘어난 총 100개 매장을 개설·운영할 계획이다.

이들 전남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의 총 매출은 해마다 100억원 넘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전남지역 로컬푸드 직매장 총 매출은 913억2100만원으로, 전년(811억200만원) 보다 12.6%(102억1900만원) 증가했다. 올해 전남농협이 세운 매출 목표는 1000억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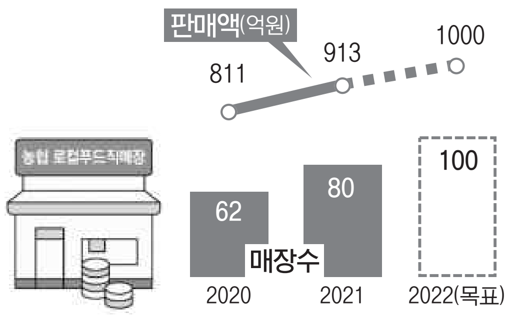
이 같은 매출 증가율은 전국 평균 12.0%(4603억→5156억원)를 웃돈다. 지난해 전남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은 전국 총 매출액의 17.7%를 차지했다. 전남은 경기(1234억원)에 이어 9개도와 다른 광역시 가운데 두 번째로 매출이 높은 지역이다.

지난해 말 기준 로컬푸드 매장 수는 105개로, 경기와 같았다.

전남·경기에 이어 매장 수는 경남(69개), 충남(66개), 전북(55개), 강원(52개), 경북(46개), 충북(35개), 제주(5개), 광역시(77개) 순으로 나타났다.

전남농협은 지역농협들의 직매장 운영에 대한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농상생형, 타기관연계형, 무인매장형 등 새로운 유형을 적극 도입할 예정이다.

■농협 전남본부 로컬푸드 직매장 추이



예를 들어 지난 2020년 11월부터는 화순 도곡농협이 백화점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롯데백화점 광주점에 '전남도 로컬푸드 전문관'을 수탁 운영하고 있다. 이는 롯데백화점 호남충청지역과 전남도가 맺은 '농수특산물 판로확대 업무 협약'으로 시작된 사업 중 하나이다.

도곡농협이 운영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는 700여 농가가 생산하는 200개 품목 중 50여 개가 당일 판매되고 있다.

이외 순천농협 '한평 로컬푸드'와 무안 일로농협이 진행하는 '로컬푸드 장터' 등 새로운 유형이 시도되고 있다.

지역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의 노력은 전남 곳곳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화순농협 서부지점 로컬푸드 직매장 개점식에서 박서홍(가운데) 농협 전남본부장 등이 로컬푸드 판매 활성화를 다짐하고 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강진농협은 출하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농산물 안정성 검사를 벌이며 소비자 신뢰를 얻은 결과 개점 1년 만에 총 매출 18억원을 넘겼다.

장성 남면농협은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을 위한 장성군의 '푸드플랜' 전략에 동참하는 '농협 장성군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광양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의 '우리지역 농산물 사주기 운동'과 곡성 옥과농협 '캠핑식품 꾸러미'도 호응을 얻었다.

전남농협은 앞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을 위한 예산 지원과 함께 단계별 현장 컨설팅, 출하농가 사업설명회 및 교육 등을 지역 농축협에 제공할 방침이다.

박서홍 전남본부장은 "소비자에게는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중소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로컬푸드는 농산물이 생산지에서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거리인 '푸드 마일리지'를 줄이며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전남 2021년산 벼 수매가 6만3795원

지난해보다 5634원·8.1% 하락

지난해 쌀 생산량이 크게 늘면서 40㎏ 한 가마니당 수매가가 전년보다 5600원 가량 덜 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쌀값은 수확기 들어 석 달 연속 하락하면서 연초 80㎏ 쌀 한 가마니 가격은 20만원 선에 턱걸이했다.

9일 농협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광주·전남 평균 2021년산 벼 수매가(도정되지 않은 조곡·40㎏)는 6만3795원으로, 전년 평균(6만9429원) 보다 8.1%(-5634원) 떨어졌다.

전남에 있는 미곡종합처리장(RPC) 22곳과 광주통합RPC는 지난 연말까지 시세를 따져 수매가를 최종 확정한 뒤 6만원 가량인 우선 지급금의 차액을 농민에게 지급하게 된다.

지난 5일 기준 (도정된) 산지 쌀값은 80㎏에 20만3556원으로, 전년(21만8260원) 보다 6.7%(-1만4704원) 하락했다.

이 같은 쌀값 하락은 전국적으로 지난해 쌀이 수요보다 31만t 과잉 생산된 영향을 받았다.

전남은 지난해 6년 만의 쌀 풍년을 맞아 전년보다 14.8%(10만1838t) 증가한 78만9650t이 생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aT·세계한인무역협, 농수산 신흥시장 개척 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세계한인무역협회와 농수산식품 수출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김춘진 aT 사장은 지난 6일 서울 aT 센터에서 장영식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 OKTA) 회장과 노성희 부회장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두 기관은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 과정에서의 탄소배출을 줄이는 '글로벌 그린푸드 데이'와 ESG 경영에도 힘쓰기로 약속했다.

aT와 세계한인무역협회는 지난해 5월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협약 뒤 첫 사업으로 아르헨티나, 뉴질랜드에 우리나라 농수산식품을 홍보하기 위한 '해외 안테나숍'을 설치해 해외 소비자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매장은 전통 장류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고 aT 측은 설명했다.

김 사장은 "한국 농수산 식품 수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2만8000여 한인 경제인들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해외안테나숍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해외시장 정보조사, 수출컨설팅, 수출상담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이마트, 설 선물 준비 완료

농수산 지난해 대비 저렴

이마트는 설 성수품 주산지에서 물량을 대거 확보한 결과 농수산 선물 시세가 전년보다 낮게 형성될 수 있었다고 9일 밝혔다.

이마트는 올해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2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선물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배 주산지인 나주와 천안에서 선물용 6만7000개를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기획량 3만개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6개월 전부터는 목포수협, 한림수협 등 주요 수산물 경매장에서 참조기 시세가 저렴할 때마다 물량을 지속 비축해왔다. 선물용으로 적합한 85g 이상 우수 원물 확보에 주력해 가격과 품질을 모두 잡았다는 게 이마트 측 설명이다.

주요 상품인 명품골드 영광참굴비 1호(1.7㎏·10미)는 지난해 30만4000원에서 30만2400원으로 가격이 낮아졌다.

또 올해는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 구이용 냉장 한우 선물세트를 찾는 발걸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냉장한우 선물세트 기획량을 지난해보다 10% 가량 늘렸다.

이마트 설 한우 선물세트 매출에서 냉장한우 선물세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35.5%에서 지난해 48.0%로 증가했다. 이마트는 올해 역대 최초로 비중 50%를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지난 7일 열린 '친환경에너지 공동개발 업무협약식'에서 김인식(오른쪽) 농어촌공사 사장과 허재영(가운데) 국가물관리위원회위원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협약 체결을 기념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제공〉

농업생산기반시설 활용 친환경에너지 개발 나서

농어촌공사·한수원 협약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활용해 친환경에너지 자원을 함께 개발하기로 했다.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과 정재훈 수력원자력 사장은 지난 7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친환경에너지 공동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두 기관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활용한 친환경에너지 자원개발 등 친환경에너지 개발과 보급에 협력하기로 했다.

공사는 오는 2030년까지 2.0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농어민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 체결로 공사 보유의 저수지, 담수호 등은 재생에너지 발굴에 활용된다.

체결식에서는 친환경에너지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목표 이행 의지를 대외에 알리는 선포식도 진행됐다.

김인식 사장은 "친환경에너지분야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이라는 국가 목표 달성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긴밀한 협업으로 농어촌 친환경에너지를 확대해 농어민이 체감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전원주택 강력추천!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경상리 전원주택부지

■ 면적 : 456평

■ 4채 건축허가 득

■ 진입로 상수도 확보

상담 010-3675-7592